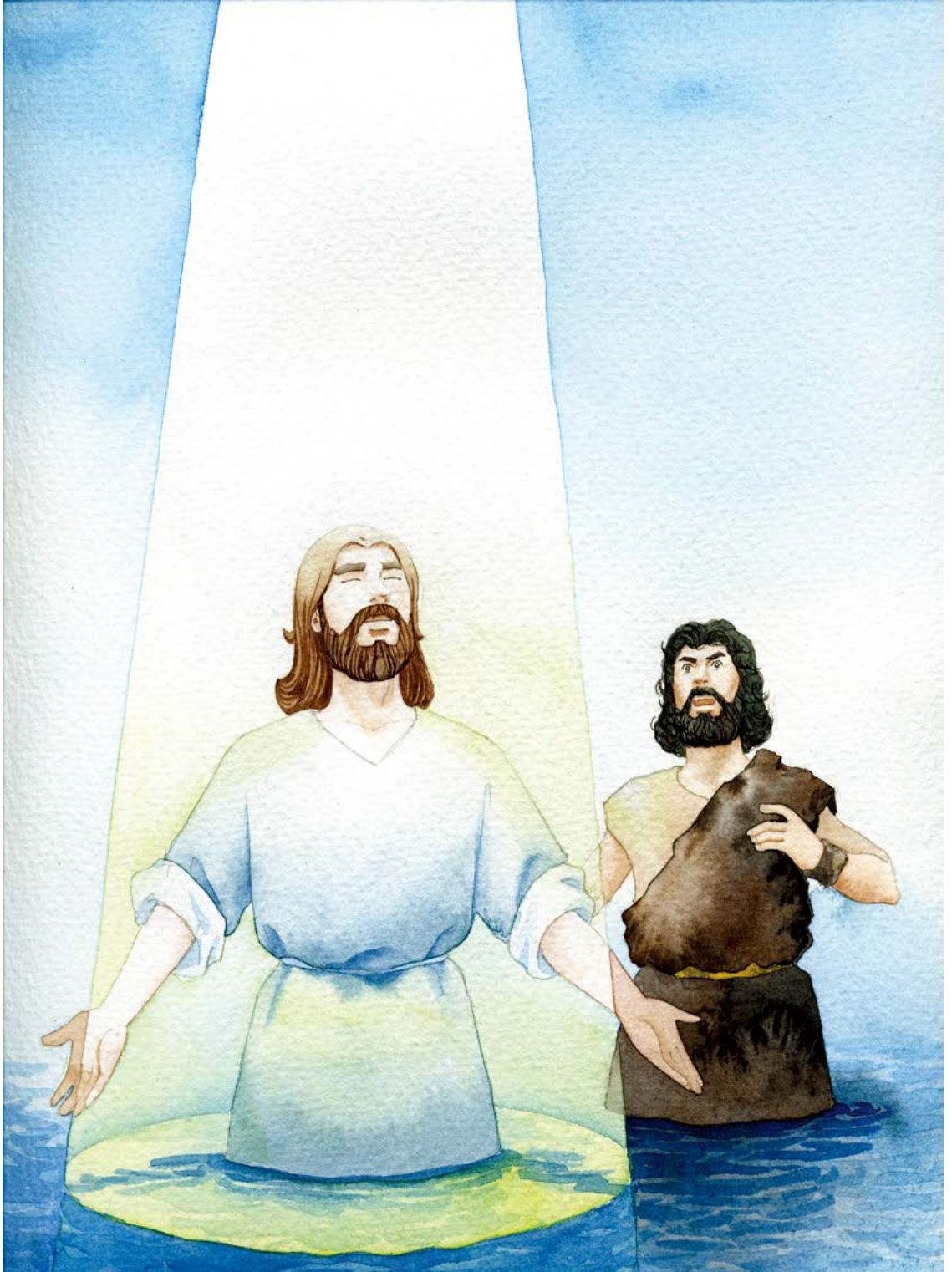


28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13~17, 요한복음 1:29~36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레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레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자,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레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세레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레 요한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 암송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다음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다음 날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양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실 것이기 때문에 ()
- ② 요단 강에는 물이 많아서 침례를 받기에 좋아서 ()
- ③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싶어해서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1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적어 보세요.

.....

.....

.....

.....

.....

.....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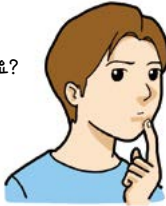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침례는 무엇일까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침례가 뭐예요?



침례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란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란다.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과 합하여 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4)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와 과
 의 이름으로 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단다.
성경 이야기를 읽는데 '저가 죽으러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어린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적혀 있었어.

'그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길을 가다가 물이 많이 있는 곳을 보고 내려가서 곧 침례를 받았단다.

너희는 언제 침례를 받았니?



침례를 받았으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적어 보세요. 그때 가졌던 마음도 적어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를 가르쳐 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사도행전 8:35~36))

예 화



그리스도의 대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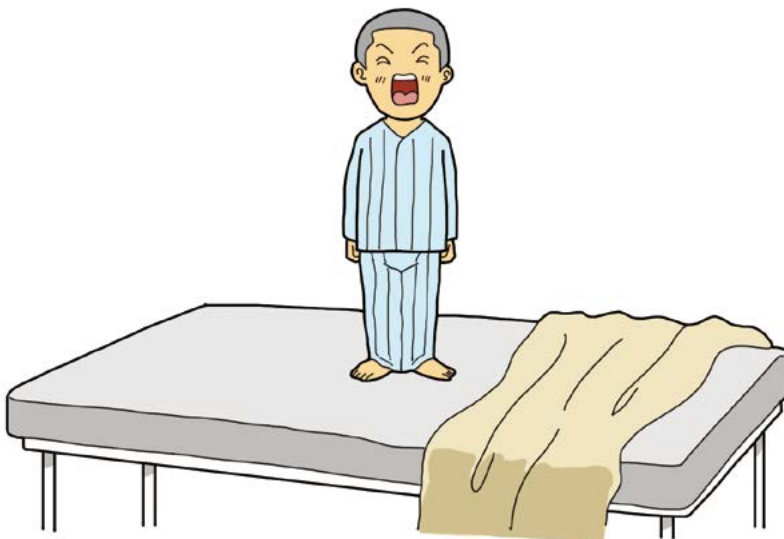
크리미아 전쟁 때 스푸타리의 한 병원에서 어떤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나 분명히 의식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간호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기진하여 숨을 헐떡이는 그를 침대에 다시 눕히고 부드럽게 위로한 후,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했다.

“나는 전쟁이 끝나 내 연대에서 점호를 받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기에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머지않아 대접호가 취해질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알아볼까요



요단 강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고 큰 강입니다. 요단 강은 헐몬산 남쪽 기슭에서 홀라 계곡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위 부분과 갈릴리 호수 남쪽 하구를 통과하여 요단 골짜기를 따라 사해에 이르는 아랫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강의 길이는 약 500km인데, 북쪽의 해발 900m에서 해발 -210m인 갈릴리 호수, 해발 -400m인 사해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폭은 8~15m로 좁지만, 고대 요단 강은 매우 크고 자주 강물이 넘치기도 하였습니다.

요단이 모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호수아 3:15)

요단 강은 비가 많이 오는 10월~3월에는 항상 큰 강으로 변하였던

곳입니다. 요단강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겹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 (왕하 2:8) 갔으며,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명령을 따라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4)

또 신약에서 요단 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

Blank space for parents' names.

Blank space for teacher's name.